

# 광주·전남 '다쳐서 입원' 전국 최고

## 광주 10만명당 3648명·전남 3630명...수도권의 2.5배 119 출동 25%가 손상환자...대부분이 교통·추락사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손상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입원율이 광주 10만명당 3648명, 전남 3630명으로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인천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손상은 질병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다치는 경우를 뜻한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손상은 한해 평균 약 400만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약 10.4%를 차지하는 약 3만명이었다.

특히 14세 이하 아동의 손상입원율은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903명이었다.

이는 미국(167.4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손상 발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5355명, 2011년 5810명, 2013년 7694명, 2015년 8976명 등이 손상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7년 사이에 손상 발생률이 약 68% 증가한 셈이다.

다만, 사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손상 사망률은 2009년 65.8명에서 사망자가 매년 줄면서 2015년 56.5명이었다.

시·도별 손상입원율은 광주·전남이 전

국 1·2위를 차지했다. 2013년 기준 광주는 10만명당 3648명, 전남은 3630명이었다. 전국 평균 2164명보다 40%를 웃돌았다. 인천(1296명)·서울(1501명)·대구(1602명)·경기(1743명)보다는 2배이상 많았다.

특히, 광주는 지난 2004년 1715명에서 10년이 흐른 2013년 3648명으로 2.1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전남은 2740명에서 3630명으로 32.5%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고, 안전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경우 손상이 위험이 낮다고 분석했다.

손상 환자는 대부분 119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된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량 출동 건수는 6만3000여건이었다. 이 중 교통사고로 구급차량을 이용한 건수는 5600여건, 사고 부상은 1만400건 등으로 4건 중 1건(25.4%)이 손상환자 이상이었다.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건강통계를 보면 광주지역 고위험 음주율은 지난 2012년 14.1%에서 2013년 16.8%로 1년새 2.7%포인트 급증했다. 전남은 이보다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전남은 같은 기간 13.5%에서 3.4%포인트 증가한 16.9%를 기록했다. 전남은 우울감 경험률도 3.9%에서 4.0%로 늘었다.

김정철 전남대병원 광주권역외상센터장은 "권역외상센터를 찾는 손상 환자의 대부분은 교통사고와 추락사고가 원인이다"며 "전남은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노령층 농기계 사고와 여수·광양 산업단지 사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가벼운 처벌은 사랑의 때" 검찰, 체벌교사 불기소

고교생 제3명을 대결레로 한 차례씩 때린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검찰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해 처벌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모 모고등학교 교사 A(40)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 경기도 김포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B(16)군 등 1학년생 3명의 허벅지를 대결레에 달린 알루미늄 봉으로 한 차례씩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전날 부러진 각목을 학생들에게 보이며 "잘라 죽이기 딱 좋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야간 자율학습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방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올바른 손씻기는 이렇게" 광주 북구청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오전 중흥어린이집을 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고교 일제고사 사라진다

### 교육부 표집방식 전환...올 광주 18·전남 17개 학교만 참여

모든 중 3과 고 2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 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광주일보 6월 14일 7면)가 사실상 폐지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를 모든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만 치르는 표집(標集)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 교육

부에 제안한 교육청별 자율 평가 방안 등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0일 치러지는 시험을 준비해 온 점을 감안, 표집학교 외 시험 실시 여부는 교육청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담회에서 '올 해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과 표집평가 전환'을 건

의한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교육청은 표집학교 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 평가에서는 광주의 경우 교육부가 표집학교로 선정한 중·고 18곳(중 3년 243명·고 2년 307명)만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남에서도 17개 중·고교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광주·전남을 비롯, 전체 대상(93만5059명)의 약 3%인 중학교 476곳(1만3649명), 고등학교 472곳(1만4997명)에 대해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

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가 표집학교 등 일부에서만 시행하게 됨에 따라 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학교 정보공시에서도 제외된다.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전국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취지에도, 학교 노력에 따른 학생 실력 향상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5000개가 넘는 중·고교 학업성취도 여부를 비교할 수 있어 줄세우기식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 해질 19:48 | 달뜨기 23:47 | 달지기 10:10

비는 언제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17/30	보성	맑음	14/28
목포	맑음	18/26	순천	맑음	17/31
여수	맑음	19/30	영광	맑음	15/28
나주	맑음	15/29	진도	맑음	15/27
완도	맑음	18/27	전주	맑음	16/29
구례	맑음	13/30	군산	맑음	17/27
강진	맑음	15/28	남원	맑음	14/30
해남	맑음	15/27	홍산도	맑음	16/24
장성	맑음	14/2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동향	파고(m)	동향	파고(m)
안바다	서~북서	0.5	0.5	남서~서	0.5
남부	서~북서	0.5~1.0	북서~북	0.5~1.0	0.5
남해	서~북서	0.5	서~북서	0.5	0.5
서부	안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서부	안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	☁	☀	☀	☀	☀	☀
15/27	17/27	18/32	19/32	19/33	19/33	19/33

## 죽산보 녹조 감소...수질예보 '관심' 해제

영산강 죽산보의 녹조 현상으로 내려졌던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6일 만에 해제됐다.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를 기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를 '평상' 단계로 하향했다.

영산강 죽산보의 남조류 개체 수는 지난 5일 관측에서 4만3150cells/ml까지 올라 지난 8일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죽산보 남조류 개체 수는 12일 현재 700cells/ml까지 낮아졌다.

수질예보제는 남조류 개체 수나 클로

로필-a 농도에 따라 평상·관심·주의·경계-a 단계로 나뉜다. 남조류 세포 수가 1만cells/ml를 초과하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관계없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관심 단계에서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만cells/ml 미만이면 평상 단계로 내려간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최근 내린 비로 남조류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남조류 같은 미생물 개체 수는 물 환경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대법 "아파트 선거 공고문 떼면 업무방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떼 주민 이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춘천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이모씨를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

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약·혼란케 할 만한 유행력(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벌 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www.ledexpo.com

UFI Approved Event MOTIE

국내 최대 광융합전문 산업전시회

# 2017국제광산업융합엑스포 및 광융합산업 발전포럼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7. 6. 27(화) ~ 29(목) 3일간, 일산 KINTEX

국제광산업전시회, 국제 LED&OLED EXPO 통합개최

- 광융합산업 발전포럼 (6.27 ~ 6.28)
- LED산업포럼 (6.27)
- LED조명 민간보급 활성화방안 설명회 (6.28)

## 전시회 POINT !!

- 국제광산업전시회, 국제 LED&OLED EXPO 통합 개최
- 한국광산업진흥회, KOTRA 25개국 200여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비즈니스 마켓 플레이스 제공
- 광융합, 포토닉스케어, IOT·ICT, OLED 4개 Track 광융합산업 발전포럼 개최 (무료)
- LED조명 민간보급 활성화 방안 설명회 개최 (무료)
- LED산업포럼 개최 (유료)
- 광산업육성지원기관 및 광산업 사업홍보관 등 구성·운영
- UFI,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국제전시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IPID 한국광산업진흥회 KOPHIA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LED&OLED EXPO

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Tel. 062\_605\_9626 / 9640